



코스피 1989.64 (+9.03)	코스닥 708.76 (+12.40)
금리 (20년 국채 3년) 0.868 (-0.008)	환율 (USD-달러) 1230.30 (+5.00) (20일)



[산업]
LG화학 대산공장
사고현장 찾은
구광모 LG대표
06

3.5조 추경, 55만 일자리 창출 빛 5000억 넘는 항공 등 지원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코로나19 發 고용 충격 대응위해
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사업집행
40조 기안기금, 6월 지원 총력
10조 저신용 채권매입기구 출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55만개+α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3조5000억원 규모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집행될 전망이다. 또 6월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대책 등이 담긴다.

〈관련기사 3·5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련해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5조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

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2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르포 | 80일 만의 고3 등교현장 가보니



코로나19 여파로 80일 만에 등교수업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먹인사를 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발열검사 후 침묵 속 등교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조희연 교육감 학생 발열체크
교사들은 멀리서 학생 반기며
‘1m 간격두기’ 연신 상기시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학교에서 다 함께 만나니 좋긴 한데,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20일 오전 고3 학생들의 ‘침묵 속’ 등교가 시작됐다. 삼삼오오 모여 대화 나누며 까르르 웃던 등굣길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학생들에게서 설레는 표정은 역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이 80일간 무려 5번 연기된 끝에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날 오전 7시 15분이 지나자 설레는 학생들이 하나둘, 설레는 표정으로 교문 앞으로 다가갔다. 정문 앞에서 만난 학생 김모군은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겨울방학까지 합하면 4달 만의 등교”라면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모군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하기 수월하지 않았는데 대면 수업에서는 모르는 것을 수시로 물어볼 수 있어서 수업이 기대된다”면서 “재수생보다 고3 수험생들이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불안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인다”고 털어놨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복고를 찾아 학생들을 맞았다. 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든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이마 위에 측정기

를 가까이 가져가 발열 체크를 했다. 조 교육감 옆에서 5~6명의 교사도 발열 체크를 이어갔고, 일찍 출근한 몇몇 교사는 말쑥하게 서서 학생들을 반겼다.

“애들아, 거리 두기 하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1m 간격두기’를 연신 상기시켰다.

오랜만에 만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사 방법도 이전과는 바뀌었다. 교문에서 학생들을 반기던 경복고 한 교사는 교문에 들어서서는 학생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일렬로 서서 차례대로 교문에 들어서던 학생들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체온계를 든 교사에게 고개를 빼뺨 내밀며 멍쩡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교직원 차량이 들어갈 때도 입구에서 일단 정지했다. 운전자 역시 체온 측정은 필수였다. 한 교사는 고글을 끼고 출근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은 여느 ‘첫 등교’와는 다르게 하복과 춘추복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겹옷을 챙긴 학생도 있었다.

교육 당국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학교 측도 등교 개학에 대비한 모습이었으나 학생들은 코로나19 교내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불안해했다. 이 학교 학생 유모군은 “부모님께서 마스크 꼭 쓰고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쉬는 시간 대화도 급할 때만 휴대폰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lhj@

LG전자, 구미 TV생산라인 일부 인니로 이전

찌비똥 공장 생산력 대폭 확대 또 TV시장 거점 생산지로 육성

LG전자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TV 시장 거점 생산지로 육성한다. 생산 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LG전자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 찌비똥 공장 TV 생산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찌비똥 공장은 1995년 준공돼 TV와 모니터, 사이니지 등을 생산해왔다. LG전자는 조립과 품질검사, 포장 등 전 공정에 자동화 설비를 대거 확충해 생산능력을 50%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찌비똥 공장을 아시

아 시장 거점 생산지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생산지 효율화를 통해 TV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LG전자는 권역별 거점 생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찌비똥 공장 육성을 결정했다. 구미사업장을 글로벌 TV 생산 ‘마더 팩토리’로 유지하고, 아시아는 찌비똥 공장, 유럽은 폴란드 므와바 공장, 북미는 레이노사/멕시코칼리 공장에 지역 공급을 전담케 하는 내용이다.

구미사업장 TV/사이니지 생산라인은 6개에서 4개 라인으로 축소한다. 단, 툴러블과 월페이퍼 등 고도화된 생

산 기술이 필요한 최상위 프리미엄 TV와 의료용 모니터를 전담 생산하게 된다. 신제품 양산성 검증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전략적 중요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인위적 구조조정도 시행하지 않는다. 사무직과 기능직을 포함해 인력을 전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다.

재배치되는 인력에는 빠른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 용자 ▲전임비 ▲근무지 이동 휴가 ▲주말 교통편 제공 등 주택 마련과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편의 등이다.

/김재용 기자 juk@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경쟁시대

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 전자서명 기술 경쟁 예고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향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됐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등본, 연말 정산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때나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발급 과정이 총 10단계로 복잡하고 PC와 모바일 등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생체인증으로 많은 일처리가 가능한 시대에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화면. /구서윤 기자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폐지 요구가 거세지자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정부·공공·금융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주로 쓰였다. <4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